숙박 O2O 빅2의 무한진화

해외숙박도 '여기어때' 레저·여가도 '야놀자'

숙소예약 넘어 여가활동까지

글로벌 영향력 넓히는 준비도

바른후기 등 서비스 질 높여

호텔업 등 인력난 해소 기여

모텔 중개로 시작한 숙박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사업) 업계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진화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숙박 O2O의 양대 산맥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소 예약을 넘어 여가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17년 종합 숙박앱으로 전환한 여기어때는 호텔, 리조트, 캠핑,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 예약까지 발을 넓혔다.

현재는 올해를 목표로 해외 숙박과 액티비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가능했던 숙박예약을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등을 시작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출시 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액티비티 예약은 이용자가 여행이나 출장, 모임, 데이트 등 숙소 이용 목적에 맞는 야외활동을 추천받아 예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제주 여행을 목적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즐길만한 요트투어, 스쿠버다이빙, 짚라인 등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VR(가상현실) 객실정보'가 그중 하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숙박을 예약하기 전 360도로 객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사진만 보고 찾아간 고객이 방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일이 많아 도입했는데 VR로 실제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방문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성장세를 반영하듯 인력 채용과 공격적인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 지난 3월 2018년 비전 발표에서 "올해 200명이 넘는 인재를 채용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인력 채용에 엔지니어 출신인 심명섭 대표가 직접 나서 우수 개발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숙박과 액티비티를 포함해 컨시어지, AI, IoT 등 시너지가 가능한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서 사업성장 속도를 가속화해 나간다.

여기어때는 작년 온라인사업 매출 520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숙박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이후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매출은 2016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했다.

야놀자도 올해 R&D 인력 100명을 포함한 열 개 직군에서 300여명을 채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작년엔 280명을 뽑았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있다. 2015년 367억원이던 야놀자의 매출은 지난해 1005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지난 3년 간 국내 스타트업 역대 최고 금액인 총 151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야놀자는 올 한 해 통합 여가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R.E.S.T. 플랫폼'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S.T.는 Refresh(재충전), Entertain(오락), Stay(숙박), Travel(여행)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새로운 호텔 체인 브랜드 '헤이'를 선보였으며, 일본 최대 OTA(온라인 여행사) 라쿠텐라이풀스테이와 독점 제휴를 맺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레저액티비티 플랫폼 기업 '레저큐'를 전격 인수하며, 여가와 레저, 액티비티, 숙박 등을 모두 아울러 여가 시장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추진 중인 비즈니스 로드맵을 계속 구체화 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객실 서비스인 '마이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몰카 예방 교육프로그램, 바른 후기 캠페인, 안심예약제 등을 선보이며 숙박 서비스의 질도 높였고 제휴점과의 상생을 위해 숙박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호텔업'을 운영하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조직안정이 최우선… 소통·협력 중요"

윤석헌 금감원장 첫 간부회의 주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조직안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5일 오전 첫 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감독기관의 '정명(正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형성됨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흥국 불안과 관련해서는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우려가 높아졌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와 CDS 프리미엄 등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신흥국 금융 불안은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취약 신흥국의 현황과 금융회사 익스포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장관련 부서와 각 감독국은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파급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사단법인 세종마을가꾸기회 주최로 세종즉위 600돌, 탄신 621돌 기념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외화예금' 감소세

한달 새 31억 1000만 달러 줄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과 개인이 현물환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월 말 대비 31억1000만 달러 감소한 7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732억8000만 달러 이후 6개월 만 최저치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일컫는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기업이 현물환 매도를 늘려 거주자 외화예금이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말 1063.5원에서 한 달 새 1068.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달러화 외화예금은 700억 8000만 달러에서 663억5000만 달러로 37억 3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 예금과 유로화 예금은 이 기간 각각 2억8000만 달러, 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봉준 기자

SK이노, 영업익 3분의2 비정유 부문서 달성

1분기 영업이익 7116억 기록

화학·윤활유·석유개발 성과

SK이노베이션은 15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12조 1661억원, 영업이익 71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정기보수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878억원(3.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정제마진 약세 및 유가 상승폭 둔화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감소로 1337억원(15.8%)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정유, 비정유 부문이 고른 성과를 보이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5.8% 감소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과 환율 하락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내 에너지·화학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환경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64.4%에 달하는 약 4582억원을 화학, 윤활유, 석유개발 등 비정유 부문에서 달성했다.

비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은 2015년 9606억원(49%)에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2분기에도 화학, 윤활유사업으로 대표되는 비정유 부문 사업이 안정적인 시황 속에서 호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석유사업은 정제마진 약세, 컨덴세이트 프리미엄 상승, 재고관련 이익 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839억원 감소한 3254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는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등·경유 제품의 재고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양호한 수준의 정제마진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사업은 PE(폴리에틸렌), PX(파라자일렌), 벤젠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강세로 전 분기 대비 219억원 증가한 2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는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는 아로마틱 사업에 반해, 역외 저가물량 유입의 영향을 받을 올레핀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가 전망된다.

윤활유 사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유가 상승의 시차효과로 전 분기 대비 171억 감소한 12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정기보수, 자동차 연비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견조한 고급기유 수요가 예상되며 2분기 시황은 약보합세로 전망된다.

석유개발사업은 유가 상승에도 페루 광구 사정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전 분기 대비 64억원 감소한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페루 광구 파이프라인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2분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현시점에서 SK루브리컨츠의 재상장 추진 계획은 없다"며 "SK루브리컨츠는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